

# 제 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7. 11. 16.(목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4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기영미, 김거수, 김봉진, 김성래, 김영진,  
김진섭, 나진숙, 문영아, 이명옥, 호해란
- ◆ 안 건 : 13건 20작품 (조각 13, 회화 6, 미디어 1)  
[신규 8건, 재심 5건]
- ◆ 결 과 : 승인 15작품, 부결 5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## 위원 발언 내용

### <위원장>

- 금일 심사위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수결로 사전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안

건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.
- 13페이지 보면 설치방법이 나와 있는데, 석재를 통으로 해서 깎는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판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?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
- 작품경력에 보면 이전 설치 작업을 보면 유사한 작업입니다. 이것들은 판석으로 컷팅한 것을 모듈식으로 쌓은겁니다. 하지만 도서에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아서 판석으로 쌓았는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.
- 우선 판석인지 아닌지 보다는 형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
- 작품명하고 형태가 매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
- 예전 작품들 보면 판석을 쌓아서 깎는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안전한 면에서는 설치작품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조형적인 면은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
- 조형미는 각자 판단하기로 했는데 14페이지 보면 조명계획이 나와있습니다. 전체 건물과의 조화를 봐서는 조명에 칼라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원톤의 칼라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, RGB 컬러의 색온도가 따뜻한 색부터 차가운색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.
- 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좋다는 말씀인 것인가요?
- 어떤색으로 할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
- 다음 2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작가가 의도했을 수도 있겠지만, 3개 기둥이 불안정해 보입니다. 각각의 기둥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.
- 시각적으로 작품을 봤을 때 조형적물이 불안해 보입니다.

-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.
- 3번 작품입니다.
- 건물이 독특하고 세련되었습니다.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
- 우려가 되는 것이 작품의 색이 계속 유지가 될지 좀 걱정입니다.
- 4번 작품입니다.
- 조각 1작품에 미디어 1작품입니다.
- 2번의 영상 작품보시겠습니다.
-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5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5번 작품입니다.
- 작품이 회화성보다 공예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.
- 공예적이지만 나름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
- 5-4번 작품은 13작품을 층별로 설치한다는 건데요.
- 한 작가의 작품을 모두 설치한다는 것 같습니다.
- 5-3번 작품은 도판을 보니까 빛이 투과되는 효과를 의도한 것 같은데 이미지를 보면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. 실제로 보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- 재료는 아크릴 물감이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
- 유화하고는 달라서 보이는 얼비침 정도는 있을 겁니다.
- 통과 되면 실제 작품을 보면 좋겠습니다.
- 작가의 경력도 봐야 하는데 약간 우려가 됩니다.  
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검증된 경력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약력과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
- 경력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 넘어가겠습니다. 작가경력서에

작품이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.

- 14페이지 작품 설명이 있는데 작품 설명의 텍스트를 양끝 맞춤을 하면 글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. 시에서 명판관련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작품 통과되면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요양병원의 이미지와 작품의 번개 치는 것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보더라도 안정감을 주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.
- 위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출입구 정면에 4미터 되는 것이 너무 크게 되어서 산만합니다. 병원이면 편안하고 힐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
- 요양병원은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다른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앞 공간을 쓴 것 같은데 위치가 좀 부족합니다. 요양원에 계신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데 조형물로써 상징적인 임팩트를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따뜻하고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좀 가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병원이다 보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
- 참고하시면 되겠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.
- 장소는 같고 작가는 다릅니다.
- 의견이 없으시면 8번 넘어가겠습니다.
- 이 작업이 당선이 되면 심의가 통과가 되면 굳이 구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
- 역삼각형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구가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
- 물위에 설치하는 것인가요? 조명을 밖에서 쏘게 되는 것인가요?
- 내부에 장착된 조명입니다.
- 물속에 전기가 안전할까요?

- 배선을 따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
- 요즘에 수정공간에 작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
- 조명을 LED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조명이 원하는 색이 있어서 LED로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 
LED로 하게 되면 작품의 아우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 
있습니다. 작가에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추후 조명수명에 대한 조건은 발견 즉각 조치하라고 되어  
있네요.
- 8번 보시겠습니다.
- 침묵이라는 콘셉트는 형태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  
같습니다.
- 원래 이 작가는 상징적으로 작업을 하고 예술철학이 그런  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안전문제를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. 부딪쳤을 때 인명사고가  
일어나거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게 작가가 고민을  
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.
- 다음 작품입니다.
- 30페이지 보면 명판 설명 보면 명판 위치가 너무 낮은 것  
같습니다.
- 작가 입장에서 작품 옆자리가 자기 작업의 일부로 볼 수도  
있습니다. 하지만 작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일리가 있는  
말입니다.
- 8-3 작품도 밑에 붙어 있습니다.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 
같기도 합니다.
- 작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긴 하지만 권고는 할  
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

- 네 의견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.
- 통상 회화는 키의 150 정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작품 주제에 따라 약간 높낮이를 조정을 합니다.
- 바닥에서 60센치 정도면 굉장히 낮은 높이입니다.
- 뒤쪽 그림은 세로형이긴 한데 높이가 1.73이고 앞에는 2미터인데요. 이게 약간 올라가서 두 개의 높이가 같아야 할 것은 같습니다.
-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보편적으로는 한국인의 키에 맞추는데 작품의 포인트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. 흑백작품은 포인트가 윗부분에 있어서 높이를 낮춘 것 같습니다. 작품들의 높이를 딱 맞춰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.
- 9번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 9번부터는 재심인거 같습니다.
- 저번보다 더 अच्छ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.
- 부결의견은 작품의 조형성을 주었었는데요. 지금 더 이상한 것을 올려놓았습니다.
- 전경, 원경 등을 보고는 판단이 어려운데 정확히 조감도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9번작품은 부결되었던 사유와 새로 올라온 작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입니다.
- 10번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 변경전과 변경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재질은 스텐입니다.
- 조지아 오키프 작품과 많이 유사합니다. 색상도 조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.
- 디자인 전공한 분이라 작품이 디자인적입니다.
- 여전히 조형성이 좀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. 개선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.
- 11번 보겠습니다.

- 부결사유가 유사작 다수와 독창성, 위치 등이 있네요.
- 변경후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
- 5페이지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있는데 작가가 바뀐 것은 아니죠?
- 같은 작가입니다.
- 기존에는 2작품이었는데 둘 다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는 한 작품으로 올라왔습니다.
- 고유의 정체성이 없고, 개인전도 없고, 공공조형물만 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.
- 변경전 작품보다는 변경후 작품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
- 높이가 7미터인거 같은데 안전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
- 안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
- 2작품을 합치다 보니 작품이 고액이 된 것 같습니다.
- 날카로움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날카로움을 제거하면 작가가 의도한 작품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공공조형물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. 펜스 등으로 접근을 제어한다던지, 어떤 성격이느냐에 따라 보완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
- 높이가 600밀리에서 1800밀리로 바뀌었는데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 이여서 애들이 땀 때 이 사선 부분에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, 오히려 높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보완하기 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- 부결될 당시도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.
-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꼭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를

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코너를 라운딩 한다던지요.

- 라운딩 처리 했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외부에 있기에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.
-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잔디에 두는건데 단지 내에 이 작품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
- 조형적인 측면에서 일반 상업공간에 더 어울릴 것 같은느낌이 듭니다.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- 작품 자체는 멋있습니다. 부결사유가 어린이들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다고 수정사항이 왔고 작가가 수정을 그 부분을 한 것이네요. 심의결과 때문에 부결사유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심의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내용을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- 부결될 때 높이가 낮기 때문에 모서리를 부드럽게 보강하라고 했는데 조형성 자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하면 보완이 되고, 높이 등을 명확히 지적을 했는데요. 작가는 높이를 어린아이들이 올라갈 수 없게 높이고 모서리를 보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
- 조형성 자체는 지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안전성을 보완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- 다음 3심 작품인 13번 작품을 보겠습니다.
-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 부결이 되었던 작품입니다. 그림이 어둡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작품 같습니다. 주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보기 쉬운 것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밝게 바뀐 것 같습니다.
- 재료가 화강석 등인데 12페이지 보면 벽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. 보면, 어떤 부분은 도자기이고 부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정면에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



회화작업처럼 보입니다.

-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.
- 입구라서 그런 것인가요? 다른 것은 배제하고 밝게 작품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1번 작품이 더 나은 것 같고 세 번째가 여자 나체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.
- 1번 작품의 경우, 1심 때 작품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1심 작품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.
- 그렇다고 다시 1안 작품으로 가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.
- 작품성은 대중의 취향을 모두 맞출 수가 없습니다.
-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채점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#### <위원장>

- 오늘은 20개 작품 중 1번, 2번, 6번, 9번, 11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7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